

한국 교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서 회개하라

- 요한계시록 2: 5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한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돌아보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극우 정치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교계전문가 6명의 진단과 참석자들의 토론을 통해 한국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누적되어 온 원인을 찾고 이를 고쳐나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첫발을 떼는 이 공론화 과정에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옥성득

UCLA 교수
(1차 7월 14일)



박성철

하나세교회 목사
(2차 8월 4일)



백소영

강남대 교수
(3차 8월 18일)



권수경

일원동교회 목사
(4차 9월 1일)



배덕만

기독교연구원느헤미야교수
(5차 9월 15일)



장동민

백석대 교수
(6차 9월 29일)

일 시

2025년 7월 14일 ~ 9월 29일, 격주 월요일 19~21시

장 소

성락성결교회 801호 (성수역 1번 출구,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3)

중 계

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기윤실 

참가비

6만원 (회당 1만원, 기윤실 후원회원 50% 할인)

신청 및 문의

bit.ly/한국교회연속토론회

[연속토론회] “한국교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12.3계엄 이후 한국 교회 행태에 대한 회개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연속 토론회(3차)

주 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후 원 야다북스

발간일 2025년 8월 18일

편 집 이명진

디자인 김현아

주소 (04382)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로6길 19, 202호

홈페이지 www.cemk.org 전화 02-794-6200 메일 cemk@hanmail.net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야다북스

3차 토론회 순서 및 내용

Ⅰ 사회 - 김상덕 (한신대학교 교수)

Ⅰ 내용

발제. 한국 교회의 ‘여자 사용 설명서’ 비판
- 백소영 (강남대학교 교수)

4p

Ⅰ 질의응답 및 토론

[발제문]

한국교회의 ‘여자 사용 설명서’ 비판

백소영 (강남대학교 교수)

1. 12.3 계엄 이후의 과정에서 ‘도’ ‘여성’ 문제

〈응원봉〉에 대한 찬사 ! ... ?

“계엄 해제 이후 국회 앞에서 열린 첫 집회 이후 쏟아진 응원봉, 나에게 미묘한 불편함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선결제 (like '생카' 지도), 모르는 옆사람에게 주기 위해 미리 소분한 간식과 물품(간식, 핫팩, 스티커, 피켓, 생리대 등)을 무심히 건네고, 길바닥에서 지나간 시간을 견뎌내고 (like 음악방송 사전녹화 및 콘서트장), 소속사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근조화환과 트럭을 보내는 등의 나눔과 저항의 양식에 수상하리만치 ‘휼겔’ 들에게, ‘응원봉’의 형식과 내용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정고은, “‘휼겔’과 ‘말벌’: 초대장에 응답, 연대하는 방식”, 〈문화과학〉 121, 118-119)

‘우리’는 이미 ‘광장’에 있었다

“2008년 촛불집회, 경기도에 사는 한 고등학생의 제안으로 시작, ‘소녀들’에 의해 점화되었고, 촛불집회 참여 인구의 70%가 여성이었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처리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일 뿐 아니라 정보를 생산해 내기까지 다종의 집단 지성 발휘” “과거의 정체적 주체가 보여주지 않았던 경쾌하고 유동적인 모습”

사례: ‘소울 드레서-’ 회원들: 5일만에 1700만원 모금

(평소에는 2030 여성 옷차림, 장신구 이야기를 하며 공감대를 쌓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
(김영옥,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촛불집회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아시아여성연구〉 48권 2호)

‘우리’를 호의나 선심, 고명으로 소비하지 말라

2024년 12월 7일 광장의 자유발언 무대에서 〈페미당당〉의 심미섭 활동가가 들은 말,
[순서를 정하는 사람들이 농담조로 나눈 대화]

“여기 너무 남자만, 이성애자만 있는 거 아냐? 성소수자 하나 들여보내!”

한국 기성세대 ‘진보/좌파’ 유감

[기성세대 보수/우파는 말할 것도 없으니…

시간관계상,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 과감히 생략하고]

일화들

- 1)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 5월 29일 대담 중 유시민의 발언
- 2) 김용민 목사의 ‘안티페미니즘’ 발언
- 3) 우리나라 ‘최초’ 여성 설교집

기시감: 1960년대 말, 흑인과 여성인권 운동 연대 때의 일화

1934년 여권문제가 성서해석방법론 논쟁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II

기억되어야 할 ‘민주당아저씨’의 “내재적 접근”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찌(진짜)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죠? 김문수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예요.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예요.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되었고…**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남편을 더욱 우러러 보겠죠. 경기도 지사 사모님이 됐어. 더더욱 우러러 보겠죠. 그런데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설난영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이제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니다.”

(2025년 5월 28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공개 유튜브 방송시 유시민)

모든 일에 진보적인 목사님은 왜 페미니스트를 저격하나?

김용민 병커1교회 담임목사의 페이스북 글에서... 6, 7, 8월 게시물 중에서만 인용

- “페미=여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고의 틀은 전광훈=기독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줌도 안 되는 여성팔이 파시스트들을 내 어머니 누이 아내 딸과 등치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흑막이 있는지 모르고 페미니즘 추종하는 분들, 한국 페미는 미국 페미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날도 닮지 않겠습니까? 미국 페미는 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젠 정신질환에 다름 아닌 그 집단주의에서 탈출해 광명한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룹시다.” (6월 9일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이 페미니즘을 우대하는 정책을 전면 철회하지 않으면 이대남 삼대남이 40대, 50대, 60대로 흘러가면서 흡사 현재의 사막화된 70대처럼 변해버리는 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어째 이 상황이 되도록 이 말하는 사람이 몇 없나?”(6월 18일 페이스북)

김용민 의원/목사의 페미니스트 저격글

- “이대남 삼대남이 여성혐오 극우화돼간다고 염려한다. 그런데 이대남 삼대남에게 극한 분노를 자아낸 페미니즘은 어떤가? 파시즘에 다름 아니지 않나? ... 페미니즘 청산부터 돼야 젠더평화가 이루어진다.”(6월 22일 페이스북)
- “페미들 남의 밥상에 수저얹기는 거의 종투에 가깝다. 응원봉 부대 운운하기 전에 친페미를 마다 않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득표율부터 복기해라. 마이너스의 힘, 페미”(6월 27일 페이스북)
- “어딜 가나 예외가 있지만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집단이 있다. 바로 페미다. 인성과 성정에 문제가 많은 이들로 이 집단은 특별히 예의주시해야 한다. 당연히 애네들이 평범한 사람들, 여성을 대변할 리 만무하다. 터무니없는 특권을 달라고 하질 않나, 남성을 인종주의적으로 혐오 차별하지 않나...”(7월 12일 페이스북)
- “지금 페미들이 강선우 공격하는 건, 진골 페미를 얹히려는 것이다. 아니라면 강선우를 길들이려 하는 것이고. 이제 한국 정치권은 페미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가야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폐지로도 이어가야 한다. 이게 이대남 삼대남의 마음을 돌리는 첩경이다.” “강선우 사퇴... 이제 징글징글한 왕페미의 등장을 경계해야 할 때”(7월 23일 페이스북)
- 민주당 페미정치인들 소고- “페미가 그렇게 좋으면 민노당으로 가든지 하길 바란다고 누차 이야기 했다. 민주당이 페미와 제휴하는 순간 모든 선거의 패배는 기정사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놈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온국민이 막심한 피해를 본다.”(8월 1일 페이스북)

한국 첫 여성설교집인데 전혀 '여성주의적이지 않았던'

- “좋은 취지에도 <새 시대 새 설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신학자, 활동가를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다. 그 이유는, 이 책에서 여성 신학자들의 글을 추천하고 논평한 목사 중 한 명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별법(비밀 준수 등)’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분류한다. ... D 역시 ‘운동권 남성 세대’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1970~1980년대 활동한 소위 ‘진보’라고 하는 남성들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싶어 놀랐다.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꼈다... (뉴스앤조이, 2024년 12월 13일 나수진 기자의 기사 중)
- “지금 생각해보면 이 책은 일부 저자들이 항의하고 논쟁하다가 집필을 포기했던 그 시점에 포기되었어야 할 책이다. 그럼에도 강행한 건 ‘문제의식 없음’만 노출한 셈이니까. 그 ‘문제의식 없음’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손해를 봤을 테고, 많은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게 무슨 ‘새시대’냐... 페미니즘이 ‘하나’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과 어떤 상황들에 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역량은 갖추었으면 한다.” (오수경 (전) 청어람)

2. 교회 형성 시기의 '교회 여성 사용법'

전도부인들의 활약상, 여성 리더십의 출발...!...?

한국 선교 초기의 "전도부인(Bible Women)"

- 전삼덕, 김세지, 김서커스, 원다비다...



(전도부인 전삼덕)

개인적 배경: 과부가 많음. 기혼 여성 중에는 남편의 축첩, 외도, 시집의 박해 등
가부장적 시스템 안에서 고통당하던 여성들

(양미강, "초기 전도부인의 활동에 관한 연구")

원바비다(평양의 어머니) 이야기

-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 영 부인(Mrs. L. L. Young)의 부인권서
- 1850년쯤 출생
- 결혼은 하였으나 아이가 없어 정서적, 육체적으로 학대
- 60세 되던 1910년에 기독교인이 되고 1912년에 부인권서로 임명
- 65세 되던 생일 자리 축하 기록을 보면 그동안 3,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성경낭독, 1750권의 성경책과 쪽복음 판매
- 모두 ‘다비다’를 ‘평양의 어머니’라고 부름 (<전도부인 자료집 255>)

평신도, 전문가 교육 기관은 ‘여성’기관을 먼저...

1897년 미감리회 최초의 <여자성경반>

1898 장로교 <여자성경반> 조직

→ 2년 뒤 50개 성경반이 운영될 정도로 성장
1908 평양, 89개 성경반 운영
(14개반 선교사들, 75개반 전도부인들, 약 천여명)

* 전도부인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

<성서연구반(Bible Institute)>(1905), <성서학원(Bible Training School)> (1905)이 설립됨

한국 기독교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 한국 교회사가 이덕주의 평가

“그녀[전삼덕]에게 있어서 기독교 복음은 종교적 영역 이외의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구원과 독립의 원리들로서 표현되는 한국 여성들의 인간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였다. ... 그들(한국 기독교 여성)에게 기독교 복음은 남성 중심의 봉건적 계급구조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Ewha Journal of Feminist Theology*, 2, 11~12)

그렇기도 했지만, 커리큘럼을 보시면

- 성서연구반 커리큘럼
 - 성경, 성경지리, 역사 (필수)
 - 쓰기, 산수, 생리학, 위생학 (선택)
- 성서학원 본과 커리큘럼
 - 성경, 교회사, 도덕과 창가, 체조, 가정

전도부인 최초 연구자 ‘양미강’의 평가

“이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학문이 현실과 유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측면에서 현실개혁적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여성들에게 이루어진 전도나 예배인도, 가정교육 등의 교과목이 비중있음을 볼 때, 전도부인의 역할을 한정짓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 교회에서도 연장이 되어 전도부인의 지적개발의 한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까지 여전도사의 위치가 보조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양미강, 9)

미국형 ‘온건한(soft) 가부장제’의 유입

“한국 여성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진정한 가정(true homes)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우미(helpmeets)들이 되는 것, (한국 여성들이) 주간학교의 선생들이 되는 것, 기숙학교의 보조자(assistants)들이 되는 것, (한국 여성들이) 의료사역에 있어서 간호원이나 의료 보조자가 되는 것, 즉 한국에서 한국 여성들이 그들이 자매들을 도울 수 있기에 적절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화학당 두 번째 교장 L. C. Rothweiler, KRP, Vol 1, 1892)

결혼한 여선교사들의 지위도 마찬가지...

- “당시 미국 여성 선교사들의 채용, 월급 지불, 관리 등이 남성 선교사와 매우 차이나는 상황”
- “선교사의 아내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월급 없이 가사와 선교사역이라는 두 가지 짐을 지고 일함”
- “여성 선교사들은 결혼 후에는 선교지에서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장성진 <한국교회의 잊혀진 이야기> 2008, 125~126

3. 조직 안정화, 확장 시기의 ‘교회 여성 사용법’

근현대 온건한 가부장제와 개신교 가정 담론의 친화성

“여성은 아내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은 성경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예배가 있는 곳이지요. ... 남편을 ‘상응하는 돕는 자’로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경하며, 남편에게 맞추어 나간다면, 그런 아내는 ‘완전한 남자’를 만드는 ‘완전한 여자’가 될 것입니다.”

(1999년 강남 대형교회 설교자의 주일 설교 중)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신적 소명

- 당시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는데도 ‘아멘’으로 응답한 여인이잖아요. 그런 그녀였기에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지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특권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 그리 훌륭한 일을 한 것은 맞지만, 마리아의 신앙이 그런 위대한 예수님을 키워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요. 역사를 보면 신앙의 어머니들이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을 키워낸 게 사실이니까. 저는 이번에 아이들이 쌍둥이인 것,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려고 해요. 왜 아들 넷을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들로 키워낸 분도 있다잖아요? 우리 아이들 넷이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 지 모르니까,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처럼 임해야죠. (30대 초반, 목사 사모, 3, 5살 아이 엄마, 쌍둥이 임신 중/백소영 <엄마되기, 힐링과 킬링>, 149)

경건과 욕망 사이...

- 거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배경이 짱짱해요. 신앙 좋죠, 학벌 좋죠. 여름 캠프는 웬만한 외부 프로그램보다 나아요. 왜 다른 데서 돈 비싸게 주고 하는 영어캠프는 말이 원어민 강사지 호주나 필리핀 같은 데서 데려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자매결연 맺은 미국 교회 엘리트들이 와서 해요. 제대로 된 본토 발음이고요. 어휴, 신앙들도 얼마나 순수한지. (40대 중반, 전업주부, 초등 2, 5학년 자녀/<엄마되기, 힐링과 킬링>, 155)

한국 교회와 신학의 과오

“한국 신학과 한국여성신학은 원칙적으로 하나이다. 그러나 주어진 역사적, 사회적 상황, 즉 남성 지배 체제와 전통에 처하여 여성신학이 별도로 성립되어야 한다. 남성의 지배의식과 체제를 제한하고 노출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새로운 관계, 민족과 세계의 새로운 인간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민족의 문제를 취급하지 않고는 민족이라는 주제가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다. 민중신학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로 남성 지배의 이데올로기로 둔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신학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박순경 "한국민족과 여성신학의 과제" (1983), 119~120.

4. 2016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2016년 5월, 강남역 사건

“2016년 5월 17일,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비장소’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공용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여성들에게 ‘조차’ 무시당하는 자신의 상황이 싫어서 여성을 혐오하게 되었다는 가해자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관계했던 여성이 아닌, ‘여성’ 그 자체를 하나의 범주로 삼아 ‘비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바로 그 행위가 그 공간을 ‘인류학적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분노와 살해 행위는 결코 ‘불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희생자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 ‘가부장적 문화의 기억과 몸의 습속’이 발현되었기 때문이다.”...“여성이라서 죽었다.” “오늘도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희생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여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연대하여 강남역 10번 출구를 추모의 공간으로 만든 젊은 여성들 역시 강남역을 ‘인류학적 장소’로 만들었다. 이제 그 장소는 ‘가부장적 폭력과 살인의 기억’ 그리고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여성 연대의 장소가 되었다.

(백소영 “너의 의미, 젠더 평화의 출발” 〈한국 사회 공동체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 118-119)

2018년 11월 이수역 사건

“정확하게는 이수역 근처 맥주 가게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은 조금 더 복잡한 ‘문화적 기억과 전제들’이 서로 교차하며 발생했다. 남자 다섯 명이 여성 두 명을 폭행했다고 알려지면서 또 다른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생각되었던 이 사건은,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젠더 전쟁으로 발전했다. 물리적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한 줄 알았던 여성들의 언어폭력과 부적절한 신체적 행동이 선행되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백소영 “너의 의미, 젠더 평화의 출발” 〈한국 사회 공동체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 119)

젠더 갈라치기

- ‘이대남’과 ‘이대녀’

정치적 ‘갈라치기’ 전략인가? ‘실재’인가? ‘현상’인가?
아니면 ‘징후’인가?

영영 페미니스트들은 누구인가?

- ‘영페미니스트’ (3.0)
 -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여 200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
 -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 가능성을 가진 ‘넷페미’
 - X 세대의 문화적, 제도적 경험
 - ‘혼종성’이 특징
- ‘영영 페미니스트’(4.0)는 ‘강남역’ 사건으로 가시화된 새로운 세대
 - 신자유주의적 ‘각자도생’ ‘적자생존’이 체화된 세대

젠더 전쟁, 왜 하필 지금인가?

- 1) 젠더 전쟁의 양상
- 2) “미러링”- 가부장적 여성 응시에 대한 반사경
고발인가 놀이인가, 아니면 배제인가?
- 3) 왜 하필 지금인가? 강한 가부장제(strong patriarchy)는 끝났으며 부드러운 가부장제(soft patriarchy)도 동력이 멈춘 시점에서?

정치적 사이도 극복하는 '여성 혐오' 현상

“기괴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게임 회사 ‘넥슨’ 성우는 페이스북 페이지 ‘메갈리아4’를 후원하는 티셔츠를 사서 인증했다가 계약을 해지당했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노동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비판했으나 ‘메갈을 감싼다’는 당원들의 거신 항의와 함께 집단 탈당 포화를 맞았다. 빅데이터에 기반해 남성들의 분노 심리를 분석한 <시사IN>은 대규모 절독 사태를 겪었다. 마녀 사냥 중단을 요청한 여러 진보 언론이 곤욕을 치렀다. 믿었던 <한겨레>가 <경향신문>이 <시사IN>이 <오마이뉴스>가 <프레시안>이 그럴 줄은 몰랐다는 남성들의 악다구니가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 의제에 진보적이고 다원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들이,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연대하던 이들이 그러고 있었다.”

(최승범 <나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132-133)

친밀성의 구조 변동

“친밀성의 구조변동이 급진화될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다. 친밀성은 매우 억압적일 수도 있다. 감정적인 친밀감을 즐기치게 요구하는 것이 친밀성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친밀성을 평등한 두 사람 간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협상으로 본다면, 이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 친밀성은, 공적 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과 완전히 상응하는 방식으로, 개인간의 상호작용 영역이 전면적으로 민주화되는 것을 함축한다. 물론 여기에는 더 나아간 함의도 있다. 친밀성의 구조변동은 현대적 제도 전체를 전복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 오늘날 섹슈얼리티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뒤흔들리는 변화를 겪고 있다.”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2001, 27-28)

2030 여성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 (1)

“교수님, 저는 헌신된 크리스천입니다. 페미니스트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하나를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남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지하철을 타고 등교를 하던 중에...”

(2017년 6월 이화여대 <기독교와 세계> 기말 답안지를 대신한 어느 여자 청년의 질문)

2030 여성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 (2)

“한국에서 여성으로, 페미니스트로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 때가 점점 많아지는데 굳이 한국 사회 성 불평등과 성소수자 차별,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코어인 한국교회에 가서 더 큰 고통을 자처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2024년 3월에 열린 <로잔> 이슈 포럼 ‘젠더’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난 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언어화되어 나온 문장이다. ... 스무 살 무렵에는 왜 교회에서 서른이 넘는 언니들이 유명처럼 사라질까 참 궁금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나서야 왜 결혼하지 않은 삼십 대 여성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지는지 알 수 있었다.”

최유미(30대 여성 직장인)

2025년 <교회개혁실천연대> 연속기획포럼 ‘혼란한 시대 속 그리스도인의 주체적 신앙’ 발표문/
뉴스앤조이 2025년 8월 5일자 기사에서

교회 내 여성신자들의 ‘고발’

“얼굴이 야하게 생겼으니 조심하세요.”

“찬양팀 싱어가 다같이 연습하는 시간에 나를 보고 글래머리스하다고.”

“남자집사님이 저보고 엉덩이가 커서 애를 잘 낳겠네~라고 말했어요.”

“어떤 남자집사님이 저더러 ‘그렇게 입으면 남자 형제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냐며 성폭행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20살 새내기 여자 대학생이 학생부 선생님이 오자 ‘김선생님은 우리 부서에서 화사한 꽃이다’라고 했어요.”

“여자 나이 삼십대에 얼른 시집가서 애 낳아야지 무슨 공부냐고”

“‘기도 빠지게 해야겠네. 슬슬 자궁 말라비틀어질 나이잖아’라고 해서 황당했어요.”

(2017년 〈청년사역 컨퍼런스〉 39~41에서 발췌, 인용)

개신교 성폭력 (남성/성직자/권력형)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뺨스를 내려보라고 하면 돼. 순종하면 내 양이고 저항하면 아닌 거지.” (청교도영성수련원 원장의 말)

“교회의 경우 자매들의 첫 성경험이 대부분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 목회자가 아니면 찬양팀 리더, 셀모임 형제 이런 상황입니다.” (한 청년부 담당 목회자의 고백)

“제가 속한 교회가 대형교회인데 남자목사님들 단톡방에서는 여자 교인들에 대한 저급한 품평회가 난무해요. 나가고 싶은데 그럴 용기는 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괴로워합니다.” (2019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서울 YWCA ‘불금파티’에서 한 남성목회자의 고백)

‘보통 일베들’의 시대...

“청년 남성이 청년 여성보다 담론적으로 약자라고 요약할 만한 사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윤형)

“우리 안에 파리를 틀고 앉은, 내 안에 있지만 나도 모르는 불안과 공포가 추동하는 미시적 파시즘이다.” (이상철) / “교회의 담론은 그리스도인들을 파시스트로 만들어 내는 종교적 장치다. 그것은 이미 교회의 발생 초기부터 비롯된 것이며, 근대 사회에 이르러서 그 양태는 변모했을지라도 상승주의적 가학성의 종교라는 차원에서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김진호) “수퍼 에고 파시즘”

“일베의 ‘우리’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의례’, 그저 ‘일베에 등극하기 위한 치열한 경연, 연대를 만들어내지 않는 차가운 열광이다.’ (김학준)

“이들이 느끼는 것은 이중의 착취구조다. 기성세대와 여성에게서 [불이익을 당하며] ‘젊은 남성 마이너리티 정체성’이 형성된다.” (천관율, 정한율) “맥락이 제거된 납작한 공정”

〈보통 일베들의 시대〉 추천사, 엄기호

“열광은 ‘웃음’을 가장하여 전달되지만 메시지는 강력하다. 그 메시지란 사회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홀로 ‘강력크’ 해지기를 포기한 약자들은 도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이들을 색출하고 박멸하여 국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정치가 된다. 능력주의와 각자의 책임론, 그리고 자유인이라는 성숙한 개인에 대한 담론이 사이버공간에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며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도 볼 수 있는 세계적 현상이다. 이 책을 ‘안전’하게 타자화된 ‘작은’ 서클에 대한 이야기로 읽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문제화된 집단’을 문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치와 그에 따른 사회적 삶의 변형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은 잘못이 없다

페미니즘이란 현 체제 밖의 시선이고 사유이고 언어이다. 5천년 가부장 역사 가운데 가장 대규모로, 가장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에 있었으나 현재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참여한 바 없고,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 위치 역시 스스로 결정한 바 없었던 여성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주의”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시스템을 옹호하며 개인으로서 “명예 남성”의 삶을 선택한 생물학적 여성들의 의미 추구는 ‘체제 안’의 사유와 행동이기에 페미니즘이 아니다. 또한 생물학적 남성(그리고 그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든)이라 해도, 주체로서의 자기주장이 현재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반영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역시 은유로서는 ‘여성’이기에 그의 자기 해석은 페미니스트적 성찰에 포함되어야 한다.

(백소영,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20-21)

‘너머’와 ‘이후’ 그리고 어쩌면 ‘밖’을 사유/실천할 가능성? 

MEMO